

<2022 제주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임시총회 회의록: 요약>

1. 날짜: 2022년 8월27일(토) 오후 2시

2. 장소: 민주노총 제주본부

3. 참가자

- 현장 20명(강민수 김선 김순애 김창대 노민규 부순정 안재홍 양인숙 오안자 유가향 이건웅 이선자 이성준 이성홍 정화빈, 최희정, 현성미, 황용운, 황현호, 호수정 주)

- 온라인 4명(김영란 김용희 한은정 현선)

- 위임 119명(강민희 고대승 고정민 권숙현 기명옥 김금순 김기대 김동민 김동주 김미성 김민석 김민선 김민주 김성연 김수오 김순자 김연희 김영자 김영주 김예환 김용성 김윤희김은주 김재범 김정도 김정인 김주희 김준영 김지은 김지현 김진영 김철석 김키미 김태연 김현지 김홍모 김화랑 나은혜 문광조 문미경 민병기 박문수 박미영 박사라 박소해 박은서 박은영 박재은 박진호 반영경 배아람 백운경 변종석 서영석 선 경 손영익 손일수 송동효 송숙희 송정학 신영훈 신은순 신현정 심은주 심희정 안명희 안수일 안은화 양순임 양우제 양은희 양철수 양혜우 양희주 엄문희 오문범 오상엽 오상운 오소영 오수경 오순옥 오영복 오주연 오혜찬 유일석 윤경숙 윤영주 은종복 이강수 이경원 이광민 이두백 이보람 이상영 이상언 이상혁 이수영 이승민 이신자 이외숙 이은정 이진희 이태영 이학준 이한구 임인철 임정민 장연희 정민영 정철규 조현주 최성희 최유라 최윤정 최진인 한자영 홍승주 홍영미 홍영자)

- 참관 5명(김종옥 오명환 김윤숙 박구영 양상)

총 141명 (권리당원 250명)

4. 의장 및 서기: 부순정/오명환

5. 참가자 인사

6. 평등문화약속문 읽기

7. 안건 토의 및 결정

1) 안건 1: 2022년 지방선거 평가서 승인

- 김순애 사무처장의 평가서 발표

- 의견 제시나 이견 없었고 전원 동의로 승인

2) 안건2 : 차기 운영위원 승인(선출직: 강민수, 김창대, 양인숙, 이건웅, 최희정 추천직: 김

화랑, 이성준)

- 참석한 선출직·추첨직 운영위원 인사(강민수, 김창대, 양인숙, 이건웅, 최희정 이성준)

양인숙: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에 맡았지만 열심히 하겠다

최희정: 양인숙님이 하는 것에 반만 하면 된다고 생각

김창대: 시각장애인인 제가 운영위원이 되면 녹색당이 좀 더 포용적이고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가질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선출직 운영위원을 맡았다

강민수: 선거를 겪으면서 너무 재미있었고 100% 제 의지로 운영위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건웅: 비례 대표 출마 이후 쉬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선거에 했던 경험들 그리고 앞으로 당을 조직하거나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운영위원을 하게 됐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성준: 그동안 당 활동을 제대로 못했고 이름만 올라와 있었다. 뭘 해야 할 지 뭐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 조직위원회 소개(양인숙 최희정 오명환 황용운 김선 김순애)

- 정책위원회 소개(김상애 이선자 박현옥 부순정)

- 회계 양인숙, SNS관리 김상애, 웹자보 제작 강민수 등 사무 역할 분담 안내

- 공석인 운영위원장은 총회 이후 운영위에서 선임될 것을 알림

3) 안건3 차기 운영진 및 사무처 임기 조정안

- 의장이 안건에 대한 설명: 운영위원, 사무처장, 운영위원장 임기가 제각각이어서 업무의 통일성을 위해 이번에 한해 2024년 총회까지로 임기를 맞춘다

양인숙: 2024년 총회까지가 아니라 총회가 있는 달까지 해야 한다고 수정해야 더 정확하지 않겠나?

양상(비당원 참관):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맞춰주는 게 참 중요하기에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한다

이선자: 현 부순정 공동운영위원장의 임기 종료 시점이 2023년 4월인데 2024년 총회까지로 하면 규약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안재홍: 제안 안은 공동운영위원장만 유일하게 임기보다 조금 더 하게 되고 사무처장이나 선출직 운영위원은 임기가 줄어든다.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앞뒤가 맞지 않더라도 맞추자는 취지이기에 규약 밑에 별도로 2022년 8월 임시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첨언하거나 규약은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는 이렇게 하도록 결정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규약 자체 개정 권한은 총회에 있기 때문에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만 협의해서 정리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양인숙: 공동운영위원장 임기가 1년으로 1회 연임한다고 규약에 나와 있는데 실상은 운영위원장을 하려는 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연임을 더 원한다고 해도 규약 때문에 연임을 할 수 없기에 연임을 1회에 한한다는 표현을 없앴으면 한다. 규약에 따라서 2023년 총회 이후에 연임이 지속되는 게 문제라면 2023년 총회까지로 부순정 공동운영위원장 임기를 하면 되고, 아니면 규약을 개정해서 1회로 한한다는 내용을 수정하면 좋겠다.

김순애: 공동운영위원장 임기가 원래 6개월이었고 그 취지는 녹색당이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책임을 나눠 갖는 것이었다. 그런데 6개월은 너무 연속성이 없다라고 해서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것은 녹색당의 방향과 연관된다. 선거를 준비하려

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가 끊임없이 같은 역할들을 맡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는 게 좋지만 계속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는 그런 지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저희 방향성에 대한 토론과 같이 가야 되는 지점이다. 이번에 규약 개정안이 올라온 것도 아니어서 그것은 운영위에서 토론회를 거치면서 제안이 되어야 한다. 하반기 토론 과제로 가져가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선거 기간에도 운영위원장, 운영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기 총회를 기점으로 임기들이 전환되도록 하면 좋겠다.

의장: 그러면 표결로 결정을 하겠다.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대로 지금 들쭉날쭉한 이 임기들을 2024년 총회까지로 임기를 이번에 한해 맞추고 그리고 운영위원장 임기나 아니면 임원들의 임기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을 거쳐서 다음 총회에서 규약 개정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걸로 숙제를 미루고 일단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을 먼저 거수로 묻겠다.

찬성: 17명 기권: 2명

이선자 기권 이유: 실무적으로는 이걸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규약을 기본으로 조직이 굴러가야할 것 같은데 18개월의 연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판단이 안된다.

정화빈 기권 이유: 토론을 나누고 어떤 방식이 좀 더 나은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의장: 그럼 원안대로 승인하겠다.

정화빈: 현재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겸임이 너무 과중되지 않나? 위원장과 사무처장의 정무적 판단은 좀 다를 것이다. 겸임 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발언 등 여러 자리에서 좀 헛갈리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사례가 드문 데 다른 분들 생각을 듣고 싶다.

의장: 이걸 받은 이유는 제가 이 녹색당 안에서 이렇게 크고 싶기 때문이다. 사무처장의 역할이 녹색당에서는 진짜 많기는 한데 저는 당원들과 접점도 정말 더 많이 만들고 싶고 그리고 당 내에서 정치적으로 저와 당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자리로 지금 제주 녹색당의 사무처장 역할이 중요하다.

안재홍: 우선 정식 안건을 먼저 진행하고 화빈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건 제안이라기 보다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것이어서 회의 끝난 뒤 기타로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4) 안건 4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

- 정책위원장 이선자, 조직위원 오명환이 정책위원회와 조직위원회 사업 계획 발표
- 2030 당원 만나기 등의 사업 계획은 의장이 발표

황현호: 총회 등의 공식 행사 장소가 늘 효율성을 중심으로 제주시에서 하는 건지 묻고 싶다. 성산이나 서귀포 등에서 하게 되면 지역적으로 소외되고 접근성이 떨어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의장: 그럼 안건을 우선 처리하고 황현호님 이야기를 더 나눠보기로 하겠다.

전체 동의로 안건 승인

8. 기타 안건 외 토론

1) 총회를 제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하자는 제안

황용운: 선거 평가 등은 동서남북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었다. 실제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인구 비율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을 아무래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어서 배려받지 못한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제주시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 지향점과 현실이 맞춰지면 좋겠지만 동서남북 의견 청취를 하고 총회나 행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서로 좀 양해가 필요하다.

유가향: 제주 서쪽에 사는 사람이 서귀포, 성산 등에 가려면 정말 시간과 교통편과 이 번거로움이 힘들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카풀이나 어떤 운송수단을 찾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제안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그 상황을 맞추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선자: 제가 운영위원일 때 운영위원이 7명인데 한 명이 서귀포 지역이라면 7분의 1 정도 비율은 서귀포에 가서 하기도 하고 행사들도 제주시에서 주로 많이 하게 되지만 야외에서 하는 활동이나 당원의 날 같은 것도 강정에서도 하고 대정에서도 하고 지역이나 행사의 특성에 맞게 하고 해왔다. 제주시에 집중되는 면이 있지만 고려하고 있다.

호수정주: 서귀포에 산다. 운전이 못하는 사람으로 제주시나 다른 지역에서 할 때 참여하는데 큰 에너지가 든다. 하지만 골고루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 아이가 있는 양육자 등 지원이 필요한 분을 기준으로 하면 좋겠다.

강민수: 효율적이라는 것과 어떤 구심점을 이룬다는 것은 같은 뜻이다. 제주시에서 하면 편하고 수혜를 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기준은 아니라고 본다. 미리 준비하면 마을 회관이라든가 이런 주민센터들도 충분히 빌릴 수가 있고 카풀 타다 등 10인용 승합차 대여 등의 여러 가지 방법론을 고민할 수 있다.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게 필요하다.

황현호: 이 문제가 부수적일 수는 있는데 의외로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효율과 편리성을 이야기하지만 카풀을 쓰면 화석연료 절감, 새로운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을 만나오면 새로운 에너지도 얻는다. 한번 시도를 해보고 나서 평가하자.

김순애: 우리가 선거 간담회는 지역순회를 했다. 총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공식적인 행사이고 많은 당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번 총회도 위임을 받는 과정 등에서 많은 실무적인 역할이 필요했다.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제안한다면 굉장히 많은 실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당원들이 나도 하나의 실무 인력으로서 참여하겠다는 다짐도 같이 필요하다.

김창대: 총회는 중요한 공식 행사니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하지만 지역문제는 녹색당의 다양성과 관련이 된다. 다양성을 위해 작은 회의나 지역모임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윤숙(비당원 참관): 녹색당원들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사시는 분들이 많다. 총회는 터미널 근처에 있는 곳에 하는 것이 교통편 등을 봤을 때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닌가 싶다.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성미: 그 문제는 몇 년 전에도 같은 문제 제기가 있어서 한번 하도에서 운영위회의를 했다. 애월에서 하도까지 버스타고 가려니 3시간이 걸렸다. 도착하니 너무 멀미가 심해서 도저히 회의를 할 수 없었다. 지역모임은 지역에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는 중앙에서 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행복한 결론이다 생각했다.

양상(비당원 참관): 10년에 한 번 정도는 제주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한번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 제안한다.

2) 사무처장과 공동운영위원장 겸직

유가향: 찬반의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공동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이 각각 다른 사람이 맡는 것이 이상적인 구도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이 두 자리를 겸임하는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이 든다. 예전 일을 반추하자면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으면서 역할 규범에 대한 혼란, 어떤 상황에 대해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행을 하는 것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그런 경우는 지양되어야 하지만 오늘 같은 상황은 우리가 성찰하고 필요한 방법들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김순애: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의 역할은 굉장히 다르기에 별개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한 현 상황에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공동운영위원장 선임과 운영위원회가 좀 더 책임 있는 운영을 하는 것이다. 책임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 상 총준위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기에 책무들을 다른 운영위원들 그리고 다른 공동운영위원장이 좀 더 정확히 맞는 걸로 보완들을 해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한다.

이건웅: 사무처장의 일과 운영위원장의 일이 둘 다 많다보니 둘 다 못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사무처장의 일과 운영위원장의 일을 같이 동시에 하면 이거 둘 다 못해 버릴 수 있는데 운영위원들과 새로 선임된 운영위원장이 더 책임감 있게 분담하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호수정주: 겸임에 대해 궁금했다. 상황이 있어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환기할 수 있게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다.

의장: 당원이 된 지 3년 정도 되었다. 도지사 후보로까지 나갔지만 아직 정당의 감을 익히지를 못했다. 정당의 감을 진하게 느끼고 싶어서 하고 싶다. 이 기간에 저를 좀 트레이닝하고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싶다.

김윤숙(비당원 참관):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있고 경쟁자가 없으면 박수 치고 더 힘을 보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양상(비당원 참관) :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의 자리의 차이가 있다. 한 명이 두 가지를 겸임하게 됐을 때 두 가지 역할 사이에 혼돈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잘 잡아주고 체크해줄 수 있는 사람이나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에 집중되는 자리나 권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하다. 공동운영위원장, 운영위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김창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내년 총회까지 조금 시간이 있다. 5개월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을지 혹은 변화가 필요할지 다음 총회 같은 데서 당원들 의견 청취 및 여러 가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의장: 창대님 의견이 좋은 중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스템으로 가보고 총회에서 평가받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김종옥(당원 참관): 정책위에서 활동하고 싶다. 농협에서 오래 근무했다. 기후위기, 농촌 위기 등에 대해 관심 많다.

정화빈: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의 분화가 필요하다. 겸임했을 때는 당에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3) 기타

황용운: 내가 녹색당을 하는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고 정말 정치적으로 들어가서 원내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다. 올해 지방선거 지지율이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지율이 안 나왔다. 조직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표가 어쨌든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제주 순정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공동운영위원장이 하는데 유튜브 채널에 같이 합류를 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좋아요. 알림 설정 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팬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에도 정치적으로 정치인으로 제주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한 사람 부순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2026년도에는 반드시 당선시켜야겠다. 원내로 반드시 들여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좀 이렇게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당원을 더 늘릴 수 있을까 내지는 난개발로부터 막으려는 시민들을 만나 갈 수 있을까 이게 실질적으로 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직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 고민을 더 해야 된다.

제주 녹색당 채특방 가입 늘이기, 부순정, 녹색당과 시민의 접촉 늘이기 등 각자 노력하면 좋겠다.

김순애: 9월24일 오후 4시30분 제주시청에서 제주기후정의행진이 예정되어 있다. 제주에서 기후 테마로 처음 진행하는 행진이니 만큼 많은 참여 요청